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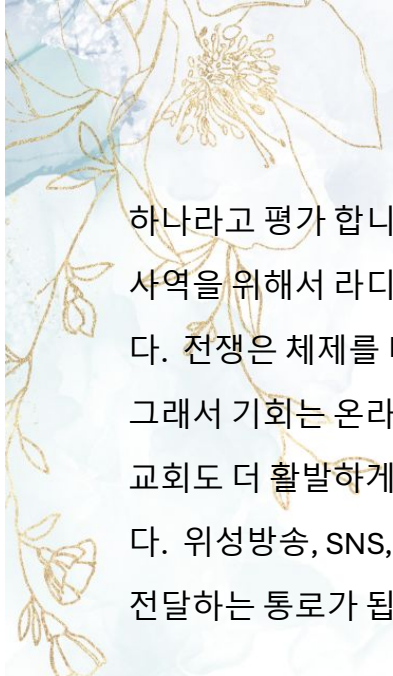
이란과 미국의 전쟁속에 선교적 전망

- 백운영 선교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중심부를 폭격 하고 이란 정권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으면서 중동 지역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한치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 혼돈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란과 중동지역의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국제 정세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서 끝나서는 안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역사를 읽을때 하나님의 주권과 이끄시는 관점에서 시대를 읽어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선교적인 관점에서 어떤 교회들이 주어진것을 생각 해야합니다. 특히 이란을 중심으로 중동의 긴장은 그동안 진행되던 사역의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선교적 전환점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전쟁은 문을 닫는것 처럼 보이지만 전쟁과정에서 생기는 디아스포라는 오히려 많은 기회의 문을 열게합니다. 전쟁은 현지에서 직접적인 사역의 활동을 제한하는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규모 난민과 오랫동안 살던 고향을 떠나는 사람을 형성 시킵니다. 이미 79 년에 팔레비 왕이 제거되고 이슬람 왕조가 세워진 후에 수많은 이란인들이 터키,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등지로 떠나서 살고 있는 현상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 흩어지며 복음이 확산된 사건과 유사한 흐름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디아스포라와 흩어지는 난민들의 선교는 중동 선교의 핵심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전쟁은 억압을 강화하지만 동시에 존재론적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생명, 죽음, 정의, 심판과 소망에 대한 질문은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답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최근 수십년간 이란 내에서는 지하 가정교회 운동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공식 통계는 제한적 이지만 다양한 선교 정보는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이 확산되는 지역중



하나라고 평가 합니다. 또 시리아, 터키 등지에 흩어진 페르시아 기독교인들은 자국민 사역을 위해서 라디오, TV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미디어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체제를 더 강경하게 만들수 있지만 영혼의 갈망까지 막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온라인과 미디어 사역의 확장으로 생겨날것이며 현지 신자 중심의 자생적 교회도 더 활발하게 복음 전파를 하게 될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위성방송, SNS, 인터넷, 페르시아어로된 성경 앱은 전쟁 상황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이란을 포함한 중동 분쟁은 단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걸프 국가등 광역적인 재편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마 앞으로 극단주의 세력의 강화가 있을 것이며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지금보다 훨씬 증가될것이 분명합니다. 지역 교회의 안전은 더 위협을 받게 될것이며 외부 사람이 입국하는 것도 많이 제한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인 리더십 강화 모델로 전환해야 하며 현지에서 그 환경에 맞는 교회는 필수적이고 자국민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는 전략적인 방법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중보 기도운동을 통해서 자국민 교회 운동에 힘을 줘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움직입니다.

